

LG그룹, 담합 용납하지 않겠다!

구분무 회장, 반드시 책임 물을 것 ... 삼성그룹 이어 근절 강조

삼성그룹이 담합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LG그룹 구분무 회장도 담합에 대해서는 “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구분무 회장은 2월2일 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신임 임원 교육에서 “담합은 정도경영을 사업의 방식으로 삼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”라며 담합 근절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.

신임 임원 교육에는 30여명의 LG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(CEO)와 사업본부장들도 참석했다.

구분무 회장이 담합 근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것은 그룹 주력회사인 LG전자의 담합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는 등 그룹의 이미지가 실추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.

삼성그룹도 최근 담합을 뿌리뽑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구분무 회장은 신임 임원들에게 “LG가 시장 선도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변화의 첨병역할을 해달라”고 주문했으며 “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구성원을 아끼고,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”고도 강조했다.

LG그룹의 신임 임원 교육은 1월27일 시작해 8일 동안 진행되며 86명의 신규 임원들이 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리더십과 통찰력 등에 대해 교육받았다.

신임 임원들은 평택 휴대전화 공장, 창원 세탁기 공장, 파주 LCD 공장, 오창 배터리 공장 등 LG의 주력사업장 6곳을 방문하며 생산현장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2/06>